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4년 1월 21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2장 1-12절

설교제목 : “그의 별을 보고”

오늘은 창립 5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에 어울리는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3년의 역사 속에서 삼광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가 소개하는 동방박사의 이야기 안에 담겨진 신학적 의미와 신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동방’이란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떠오름’입니다. 그런데 동방이란 이스라엘의 동쪽을 의미하므로 바벨론 지역일 가능성이 큼니다. 바벨론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곳이며,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접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후예들이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세운 파르티아 제국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이인데, 복수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다수의 박사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박사란 헬라어 마고이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교사, 제사장, 점성가 등을 지칭하는데, 가장 적절한 해석은 천체를 관찰하는 점성술사, 즉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마태는 동방박사의 경배가 구약을 성취하는 사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0-11절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를 경배할 것을 내다봅니다. 더불어, 이사야 60:5-6에서, 이사야는 메시아의 시대에 이방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것이 금,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따라서 동방박사의 방문과 예물드림은 이사야 60:5-6절의 성취적 의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태는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서 주의 사자가 예수님과 그의 부모를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애굽에 친히 방문한 한 지역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동방과 애굽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생활했던 두 지역이 애굽과 동방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직접 와서 경배하기도 하고, 그 메시아가 직접 애굽에 방문함으로써 그 지역 모두가 메시아의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기자는 동방박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경배를 받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갖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동방으로부터 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2절) 도대체 별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별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 것임을 생각했습니까? 이것 역시 구약의 예언 때문입니다. 민수기 24:17에서, 별과 규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16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별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그 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민수기에 예언되고,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언에서 오실 메시아를 별로 상징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9-10절에 보면,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별이 그들 고향부터 예루살렘까지 계속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타난 별이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까지 계속해서 인도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몹시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방박사의 이야기에서 신앙적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

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특별한 별을 보자,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별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구약의 예언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인지를 몰라서, 이스라엘의 수도격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거리에서 불편함도 있고, 비용도 들고, 도적떼와 온갖 위험을 무릅 쓰고 몇 달을 걸려 자기의 나라도 아닌 유대인의 메시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많고, 많은 희생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것은 공포가운데 발각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반응입니다. 왜 발각 뒤집혔습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예서의 후예인 에돔, 이두매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적 수단으로 왕이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왕가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유대의 왕이 오셨다고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의 통치는 사악한 통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아내와 두 아들을 죽이는 과렴치한 폭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폭군 아래에 있으면서도,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통치를 하게 될 때,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겪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희생과 격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5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앞서, 구약의 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그 별은 예수로 성취됩니다. 동방박사는 그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삼광의 의미가 세빛입니다. 그것은 마치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별은 모든 열방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빛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복음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삼광교회는 예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도록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53년의 역사를 이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과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헌신에 기꺼이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 ※.말씀 생각해 보기

- 1)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주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창립 53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역원들과 나누어 봅시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헌신의 몫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